

<내 복에 산다>형 민담의 전승변이 연구

李 志 映*

I. 서 론

설화는 口演을 통해 존재하기에 구비전승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기억과 구연에 용이한 이야기의 틀 곧 유형구조로 인하여 설화는 쉽게 파괴되지 않고 재연될 수 있다. 완전히 고정되고 정확한 텍스트가 없는 설화는 유형차원에서 볼 때, 모티프나 삽화들의 결합양상에 따라 그 의미나 구조가 변모되고 있다. 사실 유형구조의 변화는 모티프와 삽화에서 일어난다고 하지만¹⁾ 유형과 유형의 결합에 의해서도 가능하다.²⁾ 특히 후자의 경우 또 다른 하위유형이 파생될 뿐만 아니라, 유형보다 더 큰, 유사유형이 여러개 모여 된 상위유형으로서 類型群³⁾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줄거리가 길고 다소 복잡한 이야기를 화자가 구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망각을 하게 마련이다. 망각은 이야기 구조내의 모티프와 삽화가 연결되는 부분의 응집력이 약할 때 일어난다. 그 결과 논리적인 그럴듯함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⁴⁾ 새

* 시간강사

- 1) 崔來沃, 口碑文學概論, 한국방송통신대학, 1989, pp. 50-53.
- 2) 이에 대하여 강진옥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犬苗爭珠」 설화를 택하여 의미론적 변모양상을 검토한 바 있다.
강진옥, 犬苗爭珠 설화의 유형결합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화연구원, 論叢, 제52집, 이화여자대학교, 1987, pp. 7-29.
- 3) 연구상의 필요로 인하여 설정된, 이 '유형군'의 개념은 최래옥의 說話系, 조희웅의 說話群과 유사한 것으로, 강진옥에 의해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강진옥이 명명한 유형군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자세한 것은 강진옥,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충위, 이화여대 박사논문, p. 2 참조.
- 4) 율릭은 이를 논리성의 법칙(the logic of the Sage)으로, 앤더슨은 자기교

로운 부분이 차용되어 덧붙여지거나 탈락되기도 한다. 아르네(A. Aarne)는 설화변화의 諸樣相으로 15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야기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⁵⁾

그러나 실제 구연현장에서 채록된 설화 중에는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서도 새로운 삽화나 유형이 결합되어 구조가 확장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택하여 면밀히 고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구전민담의 존재와 그 변이양상을 재조명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쫓겨난 여인의 발복> 유형군을 택하기로 한다. 이 유형군은 <내복에 산다>형 민담(이하 <내복에>형으로 약칭)과 <복 많은 백정 딸>형 민담(이하 <백정 딸>형으로 약칭)의 상위유형을 이루고 있는데, 모티프, 삽화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이 결합하여 구조와 의미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에 두 유형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전체 유형군의 특징을 추출해야 하리라고 본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내복에>형만을 먼저 택하여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계속해서 후고를 통하여 <백정 딸>형의 유형변이 양상을 검토하는 작업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내복에>형에 대한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의 구체적인 실상 파악이 미흡하다고 보고, 유형별 개관과 함께 구체적인 유형변이 양상을 밝히면서 이야기의 의미의 변모를 구명하기로 한다.

Ⅱ. 전승유형의 분류

1. 개 관

<내복에>형은 <백정 딸>형과 함께 <쫓겨난 여인의 발복> 유형군에 속

정의 법칙(The Law of the Self-Correction)으로 설명하였다.

Axel Olrik, *Epic Laws of Folk Narrative*, in 『the Study of Folklore』 (Alan Dundes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65) p. 138.
Stith Thompson, *The Folktale*, The Dryden Press, New York, 1946, p. 437.

5) Stith Thompson, *The Folktale*, p. 436.

成善說, 傳播論, 『民談學概論』(金烈圭外 三人, 일조각, 1982) pp. 90-92.

한다. 이 유형은 광포설화로서 그 자료가 풍부한데, ‘은달전’과 같은 문헌자료나, 무가 ‘삼공본풀이’에 전승되기도 하여 그 연원이 오래된 설화로 보여진다.

〈내 북에〉형은 기존연구에서도 주로 〈백정 딸〉형과 구별없이 함께 다루어 지면서⁶⁾, 문헌·구전자료와 무가와와의 관계 등이 밝혀졌고, 이야기 속의 여성과 유형구조의 의미 또한 다양하게 해석되었다.⁷⁾ 주목할만한 견해로서, 황인덕은 기원전 1세기경에 이루어진 인도의 「잡보장경」에 “波斯匿王의 딸 善光의 인연”이라는 본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음을 주목하고, 佛典由來說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김대숙은 〈여인발복〉설화 속의 쫓겨난 여인이 富神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과, 이 설화가 철기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문화신화일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그 원형의 신화적 성격을 논한 바 있다.⁸⁾

그러나 누적된 기존연구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대로 구연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의 구체적 실상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목적이 구전민담의 전승변이 양상을 재검토하는 데 있는만큼, 우선 〈내 북

6) 〈내 북에〉형과 〈백정 딸〉형을 구별없이 함께 처리하거나, 무왕설화와 은달 설화를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

최운식,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고, 한국민속학 6, 1977.

성기열, 한일민담의 비교연구—溫達·武王系說話와 炭燒小五郎說話의 경우, 「한국구비전승의 연구」(일조각 1981).

김영만,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의 여성상징연구. 국어국문학 연구, 20집,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83.

7) 최운식, 상계논문.

성기열, 상계논문

입재해, 무왕형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여성의식, 여성문제연구, 제10집, 여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1.

이승균, ‘복 많은 여자’系 민담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81.

김석배, ‘내 북에 산다’형 민담연구, 문학과 언어, 3집, 문학과 언어문화학회, 1982.

입재해, 은달형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여성문제연구, 제11집, 여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김영만, 상계논문

김대숙,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8.

황인덕, 佛典系 韓國民談 研究, 충남대 박사논문, 1988.

8) 황인덕, 상계논문

9) 김대숙, 상계논문

에>형을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¹⁰⁾

이 <내복에>형은 「딸이 아버지와 복에 관한 문답을 나누다가 집에서 쫓겨난 뒤, 숫구이 총각을 만나고 금덩이를 발견하여 발복을 실현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쫓겨난 딸의 금 발견 이후 治富로 끝맺는 자료군(가)과, 딸이 처부 이후 몰락한 아버지를 찾아 모시는 자료군(나)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를 「축출발복」형으로, (나)를 「축출재회」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2. 「축출재회」형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 ¹¹⁾재① 대제 1-3 단월 14. 내 덕에 먹고산다. p.294.
 재② 대제 1-9 이동 2. 누구 덕에 사나. p.205.
 재③ 대제 2-1 강릉 100. 숫장수 이야기. p.309.
 재④ 대제 4-2 신탄진 43. 사람은 제 복으로 먹고 산다. p.201.
 재⑤ 대제 4-6 의당 9. 내 복으로 먹고 산다. p.134.
 재⑥ 대제 6-1 군내 18. 자기 복에 사는 딸. p.96.
 재⑦ 대제 7-8 공검 24. 제 복으로 먹고 사는 딸. p.339.
 재⑧ 대제 7-9 임하 31. 막내딸 복에 사는 정승. p.1085.
 재⑨ 대제 7-10 소천 30. 제 복으로 산다고 한 세째 딸. p.617.
 재⑩ 대제 8-4 대곡 16. 제 복으로 사는 딸. p.53.

10) <내복에>형을 하위유형으로 분류하려는 것은, 삼화나 유형간의 결합에 따른 유형구조의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임재해, 이승균, 김대숙 등은 <내복에>형에 대한 하위유형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김영만은 <백정 딸>형과 구분하지 않은 채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를 ① 아버지 추방형, ② 남편 추방형, ③ 기타 형으로 나눈 바, ① 형이 본 유형에 해당한다. 황인덕은 <내복에>형의 전승유형으로 [I] 복실현형, [II] 합리적 유형, [III] 화해형을 들었는데, [II]형은 실제로 [I]형에 포함될 것이어서 설득력이 미약하다. 특히 황인덕은 <백정 딸>형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영만, 전계논문, p.111 참조.

황인덕, 전계논문, pp.85-96 참조.

11) 재①은 「축출재회」형의 자료번호 ①이고, 대제는 「韓國口碑文學大系」의 약칭이며, 단월 14는 단월면 설화 14번을 말한다. 이후 본문에 제시되는 자료는 이와 동일하게 기술한다.

- 재⑪ 대계 8-5 남상 34. 제 복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 p.921.
- 재⑫ 대계 8-9 녹산 9. 쫓겨난 딸과 솥굽는 총각(1) p.477.
- 재⑬ 대계 8-9 녹산 10. 쫓겨난 딸과 솥굽는 총각(2) p.479.
- 12) 재⑭ 한국구비문학선집 40. 내 복에 먹는다는 딸¹³⁾
- 재⑮ 충청남도민담 76. 제 복에 사는 딸¹⁴⁾
- 재⑯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v.2 5113.1 제 복¹⁵⁾
- 재⑰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v.2 5113.2 제 복
- 재⑱ 임석재 전집 1, 내 복에 산다. p.112¹⁶⁾
- 재⑲ 임석재전집 3, 내 복으로 잘 산다. p.265¹⁷⁾
- 재⑳ 임석재전집 4, 내 복에 산다. p.193¹⁸⁾
- 재㉑ 임석재전집 6, 내 복에 산다. p.339¹⁹⁾
- 재㉒ 임석재전집 6, 내 복에 산다. p.340.
- 재㉓ 임석재전집 7, 내 복에 산다. p.231²⁰⁾
- 재㉔ 임석재전집 7, 내 복에 산다. p.233.

본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편의 내용을 포괄한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부친은 딸들과 복에 관한 문답을 주고 받으며, 막내딸이 부친의 노여움을 산다.
- B. 막내딸은 집에서 쫓겨난다.
- C. 쫓겨난 딸은 솥구이 총각을 만나 같이 산다.
- D. 쫓겨난 딸은 솥굽는 곳에서 금을 발견한다.
- E. 쫓겨난 딸은 남편에게 금을 팔도록 하여 부자가 된다.
- F. 쫓겨난 딸은 몰락했을 부친을 만나기 위하여 노력한다.
- G. 막내딸은 부친을 다시 만나 잘 모신다.

12) 재⑭의 책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해당 책에 실린 자료들의 일련번호이다.
 13) 한국구비문학회 편, 한국구비문학선집, 일조각, 1977.
 14) 최운식, 충청남도민담, 집문당, 1980.
 15)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v.2(전북편), 1971.
 16) 임석재, 임석재전집 1 (평북 I), 평민사 1987.
 17) 임석재, 동서 3(평북 III·평남·황해), 1988.
 18) 임석재, 동서 4(합북·합남·강원), 1989.
 19) 임석재, 동서 6(충북·충남), 1990.
 20) 임석재, 동서 7(전북 I), 1990.

A 단락은 부유한 집안의 사건으로, 부친이 딸들에게 누구 덕으로 잘 사느냐고 물음으로써 문제가 생긴다. 물음과 대답의 내용은 모두 공통적이다. B 단락의 경우 부친의 노여움을 산 딸은 자의적인 결심보다는 대부분 타의적으로 축출된다.

F 단락에서는 부유했던 부친이 몰락하여 거지신세가 됨으로써 막내딸의 집까지 찾아온다. 딸은 동냥을 하러 올 부친을 예견하고, 대문을 여닫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치한다.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 울리지만, 북소리가 나기도 한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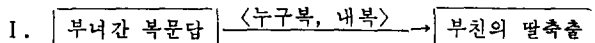
그러면 본 유형구조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유형의 줄거리는 앞서 추출된 일곱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전체 구성은 세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 과정들은 본 유형의 세 단계의 서사진행에 해당한다. 이제 이야기의 첫째 단계는 막내딸이 부친과의 의견 충돌로 집에서 쫓겨나는 「여인축출」과정(단락 A, B)으로, 둘째 단계는 솟구어 총각을 만난 딸이 금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는 「발복실현」과정(단락 C, D, E)으로, 그리고 셋째 단계는 딸이 몰락한 부친을 찾아 고서는 「재회화합」과정(단락 F, G)으로 부르기로 한다.

첫째 단계인 「여인축출」과정에서는 부녀간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 '누구 복에 먹고 사느냐, 내 복에 먹고 산다'는 부녀간의 <복문답>은 <내복에>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화자들의 기억에 도움이 되는 흥미요소이다. 이 복문답은 부녀갈등의 계기가 되면서 아울러 딸 축출의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 갈등은 서로의 인생관이 다른 데서 기인 한다.²²⁾ 즉 딸의 경우 자신의 삶은 부친의 복에 의해 영위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복에 의해 가능하다는 주체적인 자아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1) 제⑧에서는 부친이 거지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 대신에 임금이 김정승(딸의 부친)에게 고래눈을 바치라는 難題를 내자, 막내딸이 빨래하다가 건져둔 고래눈을 부친에게 드리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생각이 결린 과정은 몰락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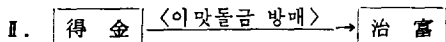
22) <내복에>형을 부녀갈등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논자가 일재해이다. 일재해는 은달형 설화의 구전설화로서 본 유형을 주목하면서, 여성이 삶의 주체로서 예측성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식과 삶의 가능성을 표출하고 부권중심의 가족제도와 도덕률을 비판했다고 보았다. 주 7) 中 '은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pp. 39-46 참조.

B 단락에서 부녀는 결국 분리한다. 자력으로 현재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어린 딸을 내쫓은 부친의 횡포가 드러나면서, 두 인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인축출」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둘째 단계인 「발복실현」 과정은 〈내복에〉 형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²³⁾ 단락 C, D, E는 전승력이 강한 흥미요소로서, 독자적으로 다른 삽화들과 결합하여 또 다른 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²⁴⁾

이 「발복실현」 과정에서 쫓겨난 딸은 숫급은 이맛돌에서 금을 발견하고, 총각을 시켜 금을 판다. 그런데 이 금은 총각이나 그 가족들에게 돌멩이로 보일뿐이다. 그리고 쫓겨난 딸이 총각과의 만남 후에야 발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총각은 단순한 보조자라기보다는 필수적인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기에 결말에서는 끝까지 그 딸과 헤어지지 않고 부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둘째 과정에서는 딸이 〈이맛돌금〉을 감식력의 소유자에게 ‘내다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쫓겨난 딸이 자신의 복을 구체적으로 완성하는 수단과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발복실현」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다.



끝으로 셋째 단계인 「재회화합」 과정에서는 쫓겨난 딸이 자신을 내쫓은 부친을 찾아 모심으로써 ‘막내딸’로 되돌아 가고 있다. 이로써 서두의 갈등은 해소되었다. 부친은 서두에서 보였던 독선과 무지를 사과하는 하나(제 ⑥, ⑭, ⑰, ⑳), 그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복대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²⁵⁾ 제 ⑤, ⑨에서는 딸이 부친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아예 혼계하고 있다.²⁶⁾

23) 김대숙, 전제논문, p. 19.

24) 둘째 과정의 전승력은 〈백정 딸〉형에서 발휘되고 있다. 이 점은 〈백정 딸〉형을 다루면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25) “니 복은 니 복이다. 니 복이 너 목고 산다고 어린 것이 그라더이 대차니 복은 니 복이다.”(제 ⑥). 대계 6-1, 전남 진도군 편, p. 99.

이러한 ‘타고난 복의 존재’에 대한 대화가 드러나는 자료 이외에는, 대부분 자료에서 몰락한 부친이 잃어버린 딸 생각에 우는 지극히 인간적인 회한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막내딸과 상봉을 하고 있다. <내복에> 형은 이처럼 부친의 본질적인 사고의 전환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쫓겨난 딸의 발복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²⁷⁾

한편 이 과정에서는 부친을 찾는 방법으로 <거지잔치>보다 <대문달아 자기이름 올리기>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모티프는 「축출재회」형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다. 또한 딸이 자신을 박대하고 내쫓은 아버지들 손수 다시 모신다는 이야기로 인하여, 이 유형의 주제는 ‘운명론적 발복담’의 성격에 ‘효행담’이 가미되었다. 이렇게 볼 때 「재회화합」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Ⅱ.

부친찾기	<대문달아 자기이름 올리기>	→	부친상봉
------	-----------------	---	------

3. 「축출발복」형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28) 발① 대계 1-4 가능동 26. 내 복에 산다. p.96.

발② 대계 1-4 진접 27. 누구 덕에 사나. p.851.

발③ 대계 2-5 양양 52. 자기 복으로 잘 산 사람. p.122.

발④ 대계 2-6 공근 28. 내 덕에 먹고 사는 세째 딸. p.612.

발⑤ 대계 9-2 노형동 43. 금덩이 파낸 솟장수. p.285.

발⑥ 전복민담 92. 내 복으로 산다.²⁹⁾

발⑦ 임석재전집 1, 제 복에 산다. p.111.

발⑧ 임석재전집 2, 제 복에 산다. p.130³⁰⁾

발⑨ 임석재전집 5, 제 복에 산다. p.171³¹⁾

26) 재⑤ p.139, 재⑨ p.621 참조.

27) 이점은 원래 佛典에 있던 <내복에>형이 순수 구전 민담으로 전환되면서, 변모된 모습이라고 보여진다. 자세한 것은 황인덕의 전계논문, pp.76-78 참조.

28) 발①은 「축출발복」형의 자료번호 ①을 말한다.

29) 崔來沃, 전복민담, 형설출판사, 1982.

30) 임석재, 임석재전집 2(평복 Ⅱ), 평민사, 1988.

31) 임석재, 동서 5(경기), 1989.

본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필 수 있도록, 9편의 자료의 내용을 포괄한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부친은 딸들과 복에 관한 문답을 주고 받으며, 막내딸이 부친의 노여움을 산다.
- B. 막내딸은 집에서 쫓겨난다.
- C. 쫓겨난 딸은 숫구이 총각을 만나 같이 산다.
- D. 쫓겨난 딸은 숫굽는 곳에서 금을 발견한다.
- E. 쫓겨난 딸은 남편에게 금을 팔도록 하여 부자가 된다.

이상의 서사단락을 보면 「축출재회」형의 단락 A~E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쫓겨난 딸의 〈득금치부〉에서 끝맺고 있는 본 유형은 나름대로 타당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또한 구전되는 자료의 실상을 감안한다면 본 유형의 설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단락별로 각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A 단락의 복문답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 B 단락에서는 딸이 주로 타의적으로 축출되는데, 발 ④, ⑥, ⑨의 경우 부친이 딸을 숫장수에게 시집보내기도 한다. 〈내복에〉형에서는 여성의 상대역으로 ‘숫구이 총각’이 원래 모습인 듯하나, 발 ⑤에서만 집안의 하인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숫굽는 이맛돌 금’ 대신에 단순한 ‘보물’의 발견으로 대체된다. ‘이맛돌 금’은 〈내복에〉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발 ②는 ‘득금’ 과정이 생략된 채 곧장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전개를 보이고 있다.³²⁾

이제는 본 유형구조의 특징을 살필 차례이다. 이 유형은 다섯 단락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딸과 부친의 재회과정이나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녀간의 갈등이 끝내 해소되지 않은 불완전한 구조³³⁾라 할 수 있지만, 구연현장에서 전승되고 있기에 자족적인 성격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본다.

유형구조의 의미는 향유층의 의식과 관련이 깊은데, 이 유형이 구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복에〉형 민담의 향유자들은 ‘복 많은 여인의 발복’에 오로지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즉 그들은 아무리 어

32) 발 ②는 다른 자료와 비교할 때 매우 불완전해 보이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구술하고 있어서 대단히 짧은 편이다.

33) 황인덕, 전계논문, p.87.

려운 경우에도 자신의 복이 있다면 난관을 헤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발복실현」과정만으로 끝나는 이 유형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만족한 채 구연을 끝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 결과 막내딸의 ‘효도’는 이차적인 관심사로 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발복재회」형에 비하여 본 유형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운명론적 복의 관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유형의 구조적 특징은 「발복재회」형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복문답〉과 〈득금〉의 핵심적인 요소에서 다소 변화를 보이는 자료가 있어서, 「발복재회」형보다는 「축출발복」형이 변이의 가능성을 더 보이고 있음을 특징으로 지적해 둔다.

Ⅲ. 유형 변이의 양상

1. 문제점검

실화는 구연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단순한 모티프나 삽화의 결합뿐만 아니라, 유형과 유형의 결합도 가능하여 원래의 이야기 구조와 의미가 변모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는 화자의 독창성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구조의 정형성이 문제되는 민담 특히 제법 긴 이야기의 경우에는 더욱 빈번할 것이다. 그 결과 이야기의 여러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날 것이고, 그 폭의 정도에 따라 심한 변질이나 전승의 중단뿐만 아니라 하위유형이나 상위유형군의 생성도 기대가 된다.

그런데 화자나 청중들은 어느 한 이야기를 「일정하게 그려진 사건 전개 의 틀」로 머리 속에 간직하며 구연현장에 참여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그 이야기가 지닌 정형성에 의해 이야기의 향방을 내다보며, 豫期한다는 말이다.³⁴⁾ 그들이 기억하는 「일정하게 그려진 사건 전개 의 틀」이란, 「작은 이야기의 덩어리(틀)로 짜여진 전체 이야기」를 뜻하는 바, 한 유형 속의 작은 이야기 덩어리는 삽화로 불려질 성질의 것이다. 앞서 다룬 〈내복에〉형 민담의 「축출재회」형의 세 과정 곧 「여인 축출」, 「발복실현」, 「재회화합」 과정은 바로 이 「작은 이야기 덩어리」에 해당한다.

34) 김열규, 한국의 神話・民俗・民談, 정음사, 1983, p. 190.

이야기는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간의 짜여진 틀의 견고성 여부뿐만 아니라 구연자의 능력, 연행 상황이나 향유층의 의식 등 여러 여건에 의해 변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내복에〉형의 각 과정별 변이의 실상을 따져 보되 유형 차원의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형과 유형 사이의 결합양상도 검토하기로 한다. 물론 본고에서는 단순한 모티프의 대체는 유형 내의 각편 차원의 문제이고, 유형 차원의 변이를 논할 때는 과정별 특정 「작은 이야기 덩어리」의 탈락과 삽입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 선다.

2. 「여인축출」과정에 나타난 변이양상

첫째 단계인 「여인축출」 과정에서 막내딸의 축출 계기가 되는 〈부녀간의 복문담〉은 〈내복에〉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며, 인생관의 차이에 의한 갈등의 반영임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채록된 자료들을 보면, 〈복문담〉 대신에 다른 이야기들이 대체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첫째 과정이 아예 탈락된 채 곧장 남녀의 만남이나 부부관계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료들이 있으며, 또한 첫째 과정만이 또 다른 유형 서두에 결합된 자료들³⁵⁾이 있기도 하다. 비록 많은 편수는 아니지만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복문담〉 대신에 다른 이야기가 대체된 자료를 살펴보자. 첫째 「결혼자원—축출」(a)의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들면,

a① 대계 1-4 진집 7. 막내딸과 숫구이 총각. p.799.

a② 대계 1-9 내사 8. 숫구이 총각과 이맛돌. p.633.

a③ 대계 7-8 상주 19. 숫구이 총각과 생금장. p.91.

a④ 한국의 민담 94. 딸 삼형제³⁶⁾

등이 있다. 딸이 축출되기까지를 요약하면

1. 부친이 딸들에게 누가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가겠느냐고 묻는다.
2. 막내딸이 자원하자, 집에서 쫓겨난다.

라고 볼 수 있다.

35) 물론 이들 자료는 〈내복에〉형 민담에 속하지 않는다.

36) 임동권, 한국의 민담 서문당, 1972.

네 편 중 a①은 「축출재회」형에, 나머지는 모두 「축출발복」형에 속한다. a②는 전반부에 <효도에 감동한 까마귀>담이 결합되어 있다. 딸의 <결혼자원> 이전에 <숫구이 총각의 효행>이 결합여짐으로써, 그러한 착한 총각에게 시집가려는 딸의 생각은 정당하며, 둘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³⁷⁾

그런데 부친이 딸을 축출할 때 노여워한 대목이 드러난 자료가 없는 것을 보면, 그의 경솔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자료에서는 쫓겨난 딸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결혼 의지'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딸의 '주체적 복 관념'으로 인한 부녀간의 갈등이 개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운명론적 복 관념이 앞선 두 유형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둘째, 「계모의 박대—축출」(b)의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로는,

b① 대계 8-11 봉수 38. 숫 굽는 총각과 결혼한 처녀. p.714.

b② 충남민담 64. 쫓겨난 딸³⁸⁾

등이 있다.

<계모의 박대> 이야기는 「장화홍련전」 전반부의 일부와 같은 것으로, 딸이 집에서 쫓겨나기까지의 사건으로는 흥미있고 또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에 첫째 과정에 끼어든 것 같다. 「여인축출」 과정을 요약하면,

1. 계모는 전처 소생의 딸을 박대한다.
2. 계모는 전처 소생의 딸의 이불(바지) 속에 짐질 벗긴 귀를 넣어둔다.
3. 그 딸은 不貞의 누명을 쓰고 내쫓긴다.

라고 할 수 있다. 딸이 축출된 이유는 처녀가 유산했다는 不貞의 누명에 있다. 그리고 딸을 내쫓은 사람은, 계모의 말에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아버지이다. 단순한 부녀갈등만 보여주던 다른 자료들에 비하여, 계모와 그 딸이 등장하면서 첫째 과정의 이야기가 길어졌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도 복잡해졌다.

37) 그러기에 부친은 딸의 다짐을 받은 뒤 혼수까지 장만하여 시집을 보내고 있다.

38) 한상수, 충남민담, 형설출판사, 1982.

그런데 두 편 모두 결말에는 계모가 벌 받아 죽고 쫓겨난 딸이 부친을 다시 모시고 있어서, 권선징악의 교훈담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기에 오히려 <내 북에>형의 「발복실현」 과정이 삽입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둘째 과정은 단지 운이 좋은 여인의 득금 횡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친의 딸 축출과 딸의 부친 봉양’이라는 기본 구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효행담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서 <내 북에>형의 유형구조는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세째, 「기타—축출」(c)의 경우이다. <복문답> 대신에 딸이 축출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은 많은 편이어서, 먼저 자료를 제시한 뒤 거론하기로 한다.

c① 대계 1-4 미금 17. 막내딸과 숫구이 총각. p.416.

c② 대계 4-6 유구 15. 내 북으로 먹고 산다. p.532.

c③ 대계 7-13 대구시 95. 숫구이 총각과 생금장. p.385.

c④ 대계 8-14 진교 11. 숫 굽는 총각 부자되기. p.303.

부녀간의 문답 내용이, <북>에 관한 것에서 c①에서는 <세 딸의 글짓기 시험> 笑話로 대체되었으며, c②에서는 <어느 꽃이 제일인가>, <네 소원이 무엇인가>로 바뀌었다. 특히 <무슨꽃—목화꽃>의 문답은 생계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여성의 지혜를 시험하는 것으로, 「축출재회」형의 재②, ⑩에서도 <복문답>과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c②에서는 정작 지혜의 시험적인 성격이 강조되지 않는 단순한 삽화로 쓰일 뿐이고, 딸은 ‘제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대답으로 쫓겨난다. c①에서는 ‘요분질’이라는 외설적인 대답으로 쫓겨난다. 비록 <복문답>은 아니지만 딸이 주체적인 삶의 태도와 性이라는 삶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사고방식을 보여 부친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점에서, 앞선 두 유형에서 드러난 <인생관의 차이에 의한 부녀갈등>이 재현된다.

c③에서 정승 딸은 시집가기가 겁이 나서 산중으로 달아난다. 단지 결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출했기에 부친과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여인축출」과정의 변질을 여기서 보게 된다.

c④는 특이한 자료로 보인다. 즉 첫째 과정에 <노래 잘 부르는 사위 고르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야기, 거짓말, 술 잘하

는(혹은 술 못하는) 사위 고르기)의 또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 부친이 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노래를 잘 하는 숫구이 총각과 혼인시킨 것은 대단한 횡포이다. 이는 부친의 일반적인 딸 축출이라 할 수 있다. c③과 함께 <복문답—축출>이라는 서사진행의 틀이 변질된 자료가 c④이다.

다음으로 첫째 과정이 탈락된 자료를 살펴보자.

D① 대계 7-8 은처 34. 숫구이 총각과 생금장. p.1201.

D② 대계 8-3 수곡 11. 부자가 된 숫쟁이. p.195.

D①을 보면 십년 간 숫을 굶던 부부가 목욕제계 후 고사드린 다음 이맛돌 금을 발견하고 있는데, 「여인축출」 과정이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D② 역시 처녀가 밤에 숫구이 총각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서 같은 과정이 탈락되었다. 결국 이 두편은 부녀간의 갈등이나 여인의 복 많음 그리고 부친 상봉과 효행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생금장 횡재>라는 의외의 행운이 강조된 단순한 治富譚으로 변모된 셈이다.

끝으로 첫째 과정에서 보여준 <복문답—축출>의 구조가 다른 유형의 서두에 차용된 경우가 있다.

E① 대계 5-2 운주 11. 사람은 자기 복으로 사는 것(求福旅行). p.324.

E② 한국의 민담 54. 쫓겨난 아들³⁹⁾

<내복에>형 민담에서는 <부녀>간의 복문답으로 시작되는 데 비하여 두 편에서는 이것이 <세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복문답으로 바뀌었다. <누구복—내복> 문답은 전승력이 강한 흥미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역시 두 자료의 서두에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 또한 막내딸이 막내아들로 바뀌었기에 이야기도 숫구이 총각과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E①은 구복여행담으로 달라졌고, E②는 호랑이 보은담으로 바뀌었다. 두 편은 모두 쫓겨난 아들이 결혼과 함께 부자가 되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복문답—축출>이라는 <내복에>형 첫째 과정의 구조가 여기서도 확인된다.

39) 최윤식, 한국의 민담, 시인사, 1987.

3. 「발복실현」 과정에 나타난 변이양상

별개의 〈돌노적 위의 금덩이〉 유형이 〈내 복에〉형의 둘째 과정에 삽입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유형간의 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또 다른 하위 유형의 설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돌노적 위의 금덩이〉 (이하 〈돌노적〉으로 약칭) 유형은 〈백정 딸〉형의 「발복실현」 과정에 역사 삽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 〈돌노적〉유형의 특징을 먼저 살펴본 뒤 유형간의 결합 양상을 밝히기로 한다.

(1) 〈돌노적 위의 금덩이〉의 유형적 특징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 돌① 대제 1-4 진점 4. 돌무더기 위의 생금덩이. p. 791.
- 돌② 대제 1-4 진점 35. 돌무더기 위에 생금덩이. p. 871.
- 돌③ 대제 5-5 감곡 29. 돌노적 쌓아서 부자 된 사람. p. 655.
- 돌④ 대제 6-2 나산 35. 돌노적과 금덩이. p. 509.
- 돌⑤ 대제 7-8 풍점 8. 노적거리와 돌더미 바꾼 이야기. p. 296.
- 돌⑥ 대제 7-16 고아 18. 탐과 나락 바꾸기. p. 51.
- 돌⑦ 대제 7-18 풍양 47. 돌거리와 벼거리 바꾸기. p. 191.
- 돌⑧ 이대학술답사보고서 13. 돌더미 위의 금. p. 556.⁴⁰⁾
- 돌⑨ 한국의 민담 62. 단합된 가정에 찾아온 복⁴¹⁾
- 돌⑩ 임석재전집 3. 벼노적과 돌노적과 바꾼 사람. p. 249.
- 돌⑪ 임석재전집 5. 돌노적과 바꾼 쌀노적. p. 204.
- 돌⑫ 임석재전집 6. 돌노적과 벼노적과 바꾸다. p. 81.
- 돌⑬ 임석재전집 6. 쌀노적과 돌노적을 바꾼 사람. p. 336.
- 돌⑭ 임석재전집 7. 돌노적과 쌀노적과 바꾸다. p. 357.
- 돌⑮ 임석재전집 7. 쌀노적과 돌노적과 바꾼 사람. p. 359.

각편의 내용을 포괄한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가난한 집에서는 아이의 제의로 귀가시 돌을 주워와 돌노적을 쌓기로 한다.
- B. 장자는 돌더미 위에 금덩이가 있음을 안다.
- C. 장자는 돌더미와 자신의 재산(노적)을 바꾸자고 제의한다.

40) 한국문화연구원 論叢 제23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74.

41) 최운식, 주 39) 참조.

- D. 장자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털어내자, 가난한 집에서도 먼위의 돌(금덩이)을 내려놓는다.
- E. 돌더미만 가져간 장자는 망하고 가난한 집은 부유해진다.

중요한 등장인물은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자집 노인이다. 다만 돌⑦에서는 두 총각이 각각 부자와 빈자로 등장하고, 돌⑩에서는 아이 대신 며느리가 그의 역할을 맡을 뿐이다. 아이는 대개 아홉 살의 막내이다. 그러나 아이는 아버지에게 가난의 책임을 물을 만큼 당돌하고, 심지어 戶主가 되어 당분간 집안 일을 관장하겠다는 의사(돌 ⑪, ⑫)를 드러낼 만큼 어른스럽다. 아이는 가난을 해결할 방도를 토의하는 가족회의 때 돌을 쌓자고 제의한다. 혹은 옆집 부자네의 쌀노적을 보고 쌀 대신 돌이라도 저만큼 쌓자고 한다. 아이는 땅을 일구든 돌을 줍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돌이 천 덩어리면 금이 한 덩어리 있다’⁴²⁾는 민중의 소박한 사고를 대변한다. 그렇지만 아이는 막상 돌더미 속의 금을 알아보지 못한다.

長者는 이웃 부자집 ‘노인’이 대부분이다. 그는 생금을 발견하는 안목이 있지만 너무 욕심이 많다. 그는 돌더미 위의 번쩍이는 금덩이를 보고 쌀 노적이나 곳간의 곡식과 맞바꾸자고 한다. 그러나 욕심때문에 자신의 나락 한 섬을 걸어 내린다. 그 이유가 집안의 고사섬(돌①), 복지킴 쌀(돌⑩, ⑫, ⑬, ⑭, ⑮)에 있지만, 그저 서운함(돌④) 때문이라고도 했다.

D 단락에서 아이는 노인의 행위를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먼위의 돌(금)을 내려버린다.

“야 여보쇼! 집이도 나락 한 섬 웃덥게 내려 났으면 비록 독 노적이지만 우리도 한 덩어리 집어 봐야 할 것 아니요?”

그런게 그때는 험 말이 없어.⁴³⁾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 그는 어린 아이의 정당한 논리 앞에 꺾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아이는 복 많은 인물이라기보다 장자의 욕심을 징벌하는 지혜로운 인물이다.

그런데 돌더미 위의 금은 우연히 돌을 줍다 달려왔다지만(돌⑤), 예사

42) 대제 5-5. 전북 정주시·정읍군편 (1), 1987, p. 655.

금이 아니고 복들(돌⑦)이거나, 깎아 팔아도 자꾸 자라나는 生金(돌②)이다. 그러한 보물을 노인은 쌀 노적을 주고 얻을 수 있었지만, 욕심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재산도 잃어버렸다.

결국 <돌노적>형은 富/貧, 老/少, 어리석음/지혜, 부정/정직, 無爲/勤勉, 욕심/절제의 대결 구조를 보여주며, 득금치부라는 민중의 이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아울러 부자라도 욕심이 지나치면 망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점은 화자와 청중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 ① 그래 마음을 인제 곱게 썼기 때문에 개는 그 황금덩어리가 도루 제거가 됐죠.⁴³⁾
- ② 그래 욕심으로 해서 망했어. 그래 남으 걸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 말이야.⁴⁵⁾
- ③ 그래 허욕이 나서 그랬는데 무조건 돌미던 흠이던 부지리 하면 묵고 산다 이기라. 그러인게 그기 그런 기 왔지. 부지리 한게. [청중 : 부잣집 사람이 너무 욕심을]⁴⁶⁾
- ④ 그래 복들을 니라 놓이[청중 : 그 ‘남의 복은 팔로도 못판다’ 그는 그 이야기에] 예, 남에 복은 팔로도 못판다.⁴⁷⁾

그들은 예문 ①에서는 정직함을, ②에서는 욕심을, ③에서는 허욕과 부지런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문 ④에서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복은 따로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이 주목된다. 설화의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⁴⁸⁾

(2) <돌노적 위의 금덩이>의 결합양상

그러면 <돌노적>형이 「발복실현」과정에 삽입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상자료를 제시하면,

43) 상계서, p. 657.

44) 대제 1-4, 경기도 의정부시·남양주군편, 1981, p. 793.

45) 상계서, p. 872, 주 39) p. 263 참조.

46) 대제 7-8, 경북 상주군편, 1983, p. 297.

47) 대제 7-18, 경북 예천군편(2), 1988, p. 192.

48) 아울러 <돌노적> 형은 가난의 탈피책으로 시작한 돌더미 쌓기와 같은 다소 엉뚱한 노력이라도 인정하려는 의식과, 길가의 돌더미 속에서도 금덩이가 있을 것이라는 우연한 행운을 믿는 민중들의 소박한 소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 49) 돌발① 대제 4-4 응천 38. 돌더미 위의 금덩이. p.359.
 돌발② 대제 4-6 반포 14. 노적가리 위의 생금덩이. p.58.
 돌발③ 대제 7-17 보문 21. 내 덕에 먹고 산다는 딸의 성취. p.348.
 돌발④ 대제 8-9 진영 38. 세계 딸과 숫장수. p.259.

등이며, 앞서 언급된 자료 중 c①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내복에>형의 돌째 단계인 「발복실현」 과정이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세 단락을 요약하면,

- C. 숫구이 총각과의 만남
 D. 이맛돌 금 발견
 E. 금 방매 처부

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를 보면 <돌노적>형은 이 세 단락을 전부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지시에 의한 금 방매> 즉 E 단락을 대체하면서 삽입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이맛돌 금을 숫구이 총각이 시장에서 안식이 있는 노인에게 판다’는 <시장방매>가, ‘돌노적 위에 둔 그 금을 장자가 쌀노적과 바꾼다’는 소위 <돌노적> 담으로 바뀌면서 이야기가 길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발복실현」과정의 C, D 단락 이후를 서사단락별로 정리하기로 한다.

- ㄱ. 여인이 지시로 남편이 돌을 쌓는다.
 ㄱ₁.⁵⁰⁾ 여인이 심심풀이로 돌을 쌓는다.
 ㄴ. 여인은 돌더미 위에 금을 놓는다.
 ㄴ₁. 여인의 지시로
 ㄴ₂. 여인 자신이
 ㄴ₃. 방 안에 둔 금
 ㄷ. 장자는 여인의 집에 금덩이가 있음을 안다.
 ㄹ. 장자는 돌더미와 자신의 재산을 바꾸자고 계의한다.
 ㄹ₁. 방 안의 금과
 ㅁ. 장자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덜어내자, 여인도 뱀위의 돌을 내려놓는다..

49) 돌발①은 「돌노적발복」형의 자료번호①을 말한다.

50) 각편의 구체적인 실현 단락(소단락)은 ㄱ₁, ㄱ₂…로 표시하고, 단락의 내용상 성격이 다른 각편과 차이가 나지만 서사 진행상 같은 단락에 해당되는 것은 ㄱ₁, ㄱ₂…로 표시한다.

나. 돌더미란 가져간 장자는 손해를 보고 여인은 부자가 된다.

나. 금빛 상실

각편에 해당되는 서사단락 기호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ㄹ	ㅁ	ㅂ
돌 발 ①	ㄱ ₁	ㄴ ₂	ㄷ	ㄹ	ㅁ	ㅂ
돌 발 ②	ㄱ		ㄷ	ㄹ	ㅁ	ㅂ
돌 발 ③	ㄱ	ㄴ ₁	ㄷ	ㄹ	ㅁ	ㅂ
돌 발 ④		ㄴ ₁	ㄷ	ㄹ ₁		ㅂ ₁
c①	ㄱ	ㄴ ₁	ㄷ	ㄹ	ㅁ	ㅂ

위의 단락 중 <돌노적>형에 해당하는 것은 단락 ㄱ, ㄷ, ㄹ, ㅁ, ㅂ의 다섯이다. 돌발②에서는 남성이 솟구이 신분이 아니기에 이맛돌 금을 발견하는 D단락이 탈락되면서, 곧장 돌더미를 쌓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사실 ‘어찌다 돌노적에 팔려 들어간 금’을 장자가 발견해야 이야기 논리에 부합한 것이지, 여인이 이맛돌 금을 발견한 뒤 그 금을 팔거나 따로 처치하지 않고 다시 돌노적 위에 올려 놓는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나 인간의 심리상으로 어설피다. 왜냐하면 소중한 금을 아무렇게나 돌노적 위에 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돌발①에서는 여인이 이맛돌 금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다가, 이 대목에서는 ‘금독인줄 모르면서’ 심심풀이로 돌을 쌓으면서 올려놓았다고 바꾸어 버렸다.⁵¹⁾ 이렇게 보면 ㄴ단락은 <이맛돌 금→돌노적 위의 금>으로 이어지는 논리상 모순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매개 단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⁵²⁾

돌발 ④에서는 <돌노적 쌓기>가 탈락된 채 방안에 둔 금을 대감이 탐내다가, 바뀐 금이 빛이 나지 않아 손해만 보았다고 했다. 이는 향유자가 장자의 이러한 강제적인 금 교환을 ‘僞計로 인한 득금’과 같은 부당한 행위로 생각했기에, 득금 실패라는 결말을 이끌어 냈다고 여겨진다.

이제 개별 유형 <돌노적>이 <내복에>형에 결합되면서 변모된 양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등장인물을 보면 <돌노적>형의 막내아들은 여기

51) 대계 4-4, 충남 보령군편, 1983, p.360.

52) 이는 설화의 자기교정의 법칙에 해당한다. 주 4) 참조.

서는 쫓겨난 딸(여인)로 바뀌었다. 여인은 남편에게 돌을 쌓도록 한다는 점에서 부모에게 이 일을 건의하는 아이와는 달리 지시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이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 다만 남편을 통해 금을 감식력이 있는 사람에게 파는 이인의 면모⁵³⁾는 찾아 볼 수 없다.

장자는 금을 알아보는 안식이 있지만 욕심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돌노적>형에서처럼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이와 노인을 통한 대결이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 바뀌었으면서도, 빈/부, 어리석음/지혜, 부정/정직, 無爲/勤勉, 욕심/절제의 대결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숫구이 총각의 경우 여전히 필수적인 보조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돌노적>형이 <내복에> 형에 결합되면서 이야기를 장편화하는 단순한 기능만 담당한 것은 아니다. 앞서 「발복실현」 과정을

득금

 <이맛돌금 방매> →

치부

로 정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시켜 유형결합된 <돌노적>형의 기능을 살펴보자.

첫째, <돌노적>형은 '여인의 지시에 의한 금 방매'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이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둘째, <돌노적>형에 나타난 '가난 타개책의 노력으로 얻은 우연한 행운'의 성격이, 결합된 <내복에>형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장자의 욕심에 대한 교훈은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내복에>형의 의미는 다소 다양해져 쫓겨난 딸의 즉각적인 발복에 온전히 맞추어져 있지 않고, 반동인물(장자)의 등장으로 인하여 교훈담의 성격도 아울러 가미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셋째, 이와 관련된 것으로, <득금—치부>의 기본적인 구조는 파괴되지 않았다고 해도, 또 하나의 유형이 결합되었고 그 의미가 덧붙여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승되는 자료의 실상을 감안한다면, 유형이 결합된 <내복에>형을 또 하나의 하위유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를 「돌노적발복」형으로 부르기로 한다.⁵⁴⁾

53) 김대숙, 전계는문, p.22.

54) 결합된 삽화의 유형 변별적 기능으로 인해 하위유형이 설정된 경우는 <나뭇군과 선녀>형 민담에서도 볼 수 있는 바, 결합형과 분리형은 각각 원상시

4. 「재회화합」과정 이후의 유형결합양상

이밖에도 「재회화합」과정에 이어 별개의 유형이 결합하여 유형의 확장이 이루어진 자료가 있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 ① 대계 4-5 부여읍 47. 내복으로 먹고 산다. p.188.
- ② 임석재전집 7. 내복에 산다. p.233.
- ③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v.8 ③ 제복에 산다. p.693⁵⁵⁾

이들 중 ①, ②는 소위 〈뺏지 못할 남의 복〉 유형이 결합된 것이고, ③은 〈바보사위 실수〉 유형이 합쳐진 것이다.⁵⁶⁾ 세 자료는 앞서 거론된 a②와 함께 〈내복에〉형은 온전히 유지된 채 앞·뒤 부분에 별개의 유형이 결합된 확장한 유형의 예가 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①, ②인데 여기에 삽입된 〈뺏지 못할 남의 복〉형은 전승되는 독립 유형으로 보여진다. 이 민담은 상당히 많은 터이나 필자가 확인한 자료를 들면,

- 남① 대계 7-10 벌전 9. 어쩔 수 없는 남의 복, p.334.
- 남② 대계 7-18 풍양 48. 남의 복은 팔로도 못 파, p.192.
- 남③ 대계 8-3 수곡 13. 남의 복은 못 뺏는다. p.198.
- 남④ 대계 8-13 상북 25. 자기 복은 못 빼앗아 간다. p.493.
- 남⑤ 충남민담 58. 제 복은 남 못 준다.

등이 있다. 비교적 단편에 속하는 이들 자료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1. 부친이 시집간 딸의 집에(또는 손님이 부자집에) 가서 보니, 그 집 개가 복이 있음을 안다.
2. 부친(손님)은 그 개가 먹고 싶다면서 삶아 달라고 부탁한다.
3. 여인은 술에 떠 있는 개의 복덩어리를 건져 먹는다.
4. 부친(손님)은 남의 복은 빼앗을 수 없다며 탄식한다.

런 삼화의 개입으로 천상시련—승천상봉형과 천상시련—수탈유래형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이지영, 한국결혼시련담 연구, 국문학연구 제85집, 1987, pp.13-14.

55)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v. 8(강원도편), 1977.

56) ③은 술장수 남편이 잠만 자는 바보가 되면서 장모의 문병시 소 팔던 방식대로 말을 하는 실수담에 연결된 것이다.

가 되겠다. 딸의 집에 복덩어리 개가 있었지만 그 개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집에 살지 않는 부친이나 손님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개를 피를 내어 먹으려고 했으나, 정작 안주인이 끓인 국에 똥똥 떠 있는 기름덩어리를 무심코 건져 먹어버린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차지할 수 없는 법이고, 오직 복이 있는 여인만이 우연히 차지한 것이다. 이 자료는 운명론적 복의 관념이 <내복에>형에서처럼 잘 드러난다.

①, ②를 보면, 이 <뺏지 못할 남의 복>형은 <내복에>형 후반부에 삽입되면서, 부친이 딸을 만난 뒤 그 딸이 과연 복이 많은 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부친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현장확인 사건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발복담의 성격을 지니는 상호공통성으로 인하여 <뺏지 못할 남의 복>형은 어렵지 않게 <내복에>형에 결합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내복에>형을 운명론적 발복담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뺏지 못할 남의 복>형은 ①, ②에서는 <설명적 삽화>⁵⁷⁾의 기능을 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모티프·삽화의 개입뿐만 아니라 유형간 결합이라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쫓겨난 여인의 발복>유형군의 하위유형인 <내복에>형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유형 변이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연된 자료의 실상을 감안하여 <내복에>형은 우선 「축출발복」

57) 이 용어는 던테스의 “설명적 모티프(explanatory motif)”에서 시사받은 것이다. 던테스에 의하면 설명적 모티프는 비구조적·임의적 요소인데, 이것의 기능은 설화의 결말이나 또는 긴 설화의 본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설화의 전체 구조는 이것의 존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삽입된 유형이, 중심이 되는 원 유형과의 공통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의미의 파생보다는 의미의 설명적·부연적 역할을 담당할 때, 이 <설명적 삽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자세한 것은, Alan Dundes, *The Morphology of North American Indian folktales* (Helsinki,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1980) pp. 67-68 참조.

형과 「축출재회」형의 하위유형이 추출된다.

둘째, 「축출재회」형은 세 과정, 즉 「여인축출」, 「발복실현」, 「재회화합」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축출발복」형은 세째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째, 화자는 이야기를 「일정하게 그려진 사건 전개 of 틀」로 기억하여 구연한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일정하게 그려진 사건전개의 틀」이란 「작은 이야기의 덩어리(틀)로 짜여진 전체 이야기」를 뜻하는 바, 「작은 이야기의 덩어리」는 곧 각각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네째, 유형변이에 있어서 모티프의 대체는 유형 내의 각편 차원의 문제이고, 유형 차원의 변이를 논할 때는 과정별 특정 「작은 이야기의 덩어리」의 탈락과 삽입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유형 구조의 변화는 유형과 유형의 결합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하위유형의 파생뿐만 아니라 유형군의 생성도 이루어진다.

다섯째, 설화의 변화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에서도 새로운 삽화나 유형이 결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이야기 구조 내의 단위간 응집력이 약화될 때 일어나지만, 전승력이 강한 특정 과정의 유무에 의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섯째, 〈내복에〉형은 세 과정별로 변이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특히 둘째 과정에서는 유형간 결합의 형태를 보이는 바, 〈돌노적 위의 금덩이〉형이 삽입되면서 구조와 의미의 변화를 초래한다.

일곱째, 그러기에 「돌노적발복」형이라는 또 다른 하위유형의 설정이 당연하다.

여덟째, 설명적 삽화로서 〈뺏지 못할 남의 복〉형이 세째 과정 이후에 덧붙여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이야기의 주제에 변화가 없이 갈등 해소 이후 등장인물의 후일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